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내 집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곳, 한국의 마법¹⁾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한국은 분쟁의 역사, 경제발전, 기술 분야의 약진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면모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한국을 직접 찾기 전까지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서울이 나의 집이 된지는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온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 덕택이었다.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나고 자랐다. 아시아가 워낙 멀었기에, 내가 아시아 국가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은 늘 모든 일이 예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듯하다. 당시 우리 언니와 형부는 업무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일 년 반째 생활하고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중남미인답게 모두 이 작은 기적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재한 베네수엘라 인구를 상당히 늘리기도 했다. 한국에 있는 베네수엘라인이 워낙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8년간 미국에서 생활했고, 처음에는 한국을 잠시만 들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 땅을 밟고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한국이 다음 행선지가 되어 버렸다. 나에게 한국은 집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법 같은 나라였다.

내가 지인들에게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한번 놀러오라고 말하면 한

1) 이 글의 원문(La magia de Corea- Un lugar al que nunca pensé llamar mi hogar)은 9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편집자.



경복궁의 정원. 가을(왼쪽), 봄(오른쪽) (출처: 필자)

결같이 한국에 어떤 볼거리가 있으며,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매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어찌면 한국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자연, 전통 그리고 현대가 만들어내는 대조는 다른 곳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국에는 전 연령대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도심에서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카페 문화를 즐긴다. 동물이 있는 테마 카페, 휴식이 가능한 정원 카페,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단순히 친구랑 들릴만한 카페도 많다. 길거리엔 무한한 수의 가게가 있고, 대형 백화점과 강남, 명동,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쇼핑 매니아를 위한 천국도 있다.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문화 활동을 즐기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한국 전역에 펼쳐진 산에 올라 절을 찾거나, 아름다운 식물군에 둘러싸인 고성을 찾는 것도 한국을 즐기는 방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반영하는 휘황찬란한 건축물도 볼 수 있다. 서울의 밤은 활기가 넘친다. 클럽, 술집, 노래방 등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으며 서울 전역에는 24시간 열려있는 식당과 포장마차가 즐비하다. 한국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매우 안전한 국가이기에 이 모든 활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신변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의미 있었다고 꼽을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서울의 한쪽에 있는 북촌 한옥 마을이다. 북촌은 서울에서



북촌 한옥 마을 (출처: <http://korean.visitseoul.net>)

가장 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청와대, 박물관, 궁을 포함한 서울 대표 관광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왕조의 고위 관료와 귀족이 살던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는 한옥이라고 부르는 한국 특유의 가옥 양식을 보존되어 있다.

나는 한국에 지인이 올 때면 늘 북촌에 데리고 간다. 도시에서 한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북촌 한옥 마을의 골목은 거닐기 좋다. 한옥 고유의 구조와 예쁜 지붕 아래에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북촌이 산에서 가깝기에 훨씬 고즈넉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높은 고도로 인해 멀리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한옥마을의 전통과 대도시의 현대성의 대조를 이룬다. 걷다 보면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도 종종 볼 수 있다.

나는 거리를 거닌 후에는 북촌에서도 카페, 찻집, 식당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편이다. 이 지역 역시 산에서 가까워 조용하고 공기가 맑다. 내게 이 지역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도 잠깐 도시에서 벗어나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경비구역의 남북한 국경 (출처: 필자)

내게 매우 의미 있었던 두 번째 장소는 판문점에 있는 비무장지대였다. 나는 한인타운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배운 바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외교와 국제 관계를 전공한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 분쟁과 그로 인한 남북한 분단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판문점을 직접 찾아 대학에서 그토록 열심히 배운 역사의 단편을 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의 일부를 느끼는 것이었다. UN의 교섭과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 남북은 정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정전 협정은 지금까지도 평화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둘로 나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DMZ)라는 군사 보안 분리 구역이 남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팽팽하다고 할 수 있는 국경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아직 전쟁 상태에 있는 곳이기 때문



UN 회의장에서 북한 땅을 밟은 여행팀 (출처: 필자)

이다. 그곳에는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사방에 총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 판문점 안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북한 땅을 밟아 볼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북한에 있어보는 기회를 얻고, 그 증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공동경비구역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의 존재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있다. 이 국경지역은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다. 나는 고객이 방문코자 하는 지역들을 묶어 여러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DMZ 투어(DMZ tours)사를 택했다. 기억하기로는 여행 수일 전에 신상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해야 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서울에서 모여 버스를 탔다. 수도에서 멀지 않아, 총 여정은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창가에 앉았다. 가는 길은 무거웠다. 도로를 따라 철책과 철망이 늘어서 있었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무장한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차를 타고 한동안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군 장교가 버스에 오른 후부터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주었다.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잔인한 분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

을 약간이나마 환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들이었다.

그날 나는 서울 도심을 떠나 근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산업화된 도시와 자연 간의 대비에 놀랐다. 그리고 여행 내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도 꽤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여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중요한 장소에 대해 설명해준 가이드 덕이었다. 그날 공동경비구역에 긴장감은 감돌지 않았다. 우리는 엄격한 감시 하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푸른 건물을 통해 북한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남북한의 국경이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한가운데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다. 이 지역이 UN 관할의 중립 지역이고, 휴전을 협의한 장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에게 공동경비구역 여행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중요한 역사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고, 서울 교외를 여행할 기회도 얻는 동시에 아무리 세세히 공부하더라도 직접 가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생각지 못한 한국행이었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이 멋진 나라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발전해 온 한국의 역사는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한국의 자연 경관은 수려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대도시와 아름다운 문화 또한 돋보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관광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장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해 본다.

[정민정 옮김]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 프리랜서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